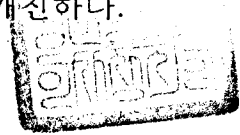


- 김병택위원 : 최근 김교수의 행동을 보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구심이 생긴다. 그러나, 징계의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학과사정을 고려한 징계 양정 심의는 곤란하며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경징계 처리가 좋겠다는 의사를 표하다.
- 정경모위원 : 김교수가 대학·대학원(서울대, 미시간대)에서 수학한 것을 볼때 실력은 있는것 같다. 성격상 조직에 어울리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염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교수는 명예와 권위를 갖고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계속하는 교수를 강단에 서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또는 이러한 교수를 강단에 세워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선의의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본건은 징계의 양이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본인이나 학생들의 교육적 염려를 감안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당분간 강단에 안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전문각위원장 : 이사장께서 본회 1차 회의 인사에서 김교수는 미국 미시간대학 출신으로 실력은 있으나 인간성이나 조직활동은 다소 부족한 점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는 인사말로 볼 때 이사장께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다고 본다. 젊은 교수 중에는 기본 예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본다. 경징계를 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심윤중, 원동호위원 : '95. 2학기 수업을 명륜동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도 학생을 보호하자는 견지에서 취한 조치였음을 개진하다.



참석위원 전원은 지금까지 적출된 징계요청 사유와 증빙을 세밀히 재검토하고 징계양정을 심의하여 「정직 3개월」로 징계 의결서와 같이 의결하다.

이상과 같이 의결하고 17 : 00에 산회하다.

1995. 12. 1

기록자 : 간 사 최 윤 한

확인자 : 위원장 전 몽 각



117